

“교육 특성화 대학원 설립

선행돼야

중앙승가대 발전모색 공청회

내년으로 개교 20주년을 맞는 중앙승가대대학교가 제2의 도약을 다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3일 중앙승가대(총장 지하) 정전관에서 열린 ‘중앙승가대학교의 위상 재정립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중·단기 기본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교육환경과 내용의 특성화, 대학원 설립 등의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본각스님(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은 “일원화되지 못한 교육체계의 무질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기초의무교육(행차교육원)-기본의무교육(중앙승가대학교)-전문의무교육(각 지방승가대학)-전문교육(대학원·승가대학원·학림·기초선원·유원)등의 순으로 승격교육체계에 대한 단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기본 교육기관에 소속돼 있는 중앙승가대·동국대·각 지방승가대·기초선원 등을 중·단기 차원에서 중앙승가대로 일원화 함으로써 승격교육의 부실화를 막고 중·단기의 위계질서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교육체계 확립과 더불어 종범스님(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은 “중앙승가대학이 학문중심의 대학이 되느냐, 교육중심의 대학이 되느냐 하는 방향설

정과 함께 적극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중앙승가대학교 교육내용의 재검토와 보완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김용철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는 “중·단기 여러 승가교육기관간의 역할과 기능의 체계적 분화를 위해 지방승가대학의 경우는 전통적인 ‘강원’의 명칭을 되찾아 수행과 승의 중심의 승가교육을 담당하고, 중앙승가대학교는 수행에 바탕을 둔 현대적인 승가교육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 중앙승가대의 학부가 교육부의 대학평가 및 관련 기준들을 철저히 이수하면서 독자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중앙승가대 내에 일반·전문·특수대학원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급격한 사회변화와 학인들의 교육욕구의 변화를 반영, 전통과 미래를 조화시킨 승가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혜스님(중앙승가대 법인처장)은 중앙승가대의 김포학사 이전이후 현 안암동 캠퍼스를 불교교양대학, 불교사회교육원 등 수익용 교육사업 공간으로 활용하고, 재가자를 학부 및 대학원에 입학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 21세기를 앞둔 중앙승가대의 다각적인 변모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암도스님(조계종 교육원장), 효승스님(중앙승가대 동문회장), 태원스님(중앙승가대 교학처장), 청

기본교육 승가대로 일원화 본각스님

‘학문중심’ ‘교육중심’ 선택 종범스님

안암캠퍼스 재가자에 개방 성혜스님

수행바탕 현대적 승가교육 김용철교수

이은자 기자



3일 열린 공청회에서 내년으로 개교 20년을 맞는 중앙승가대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사진은 서울 안암동 중앙승가대 전경.

“불교계 민간교류 협력 기대”

강인덕 통일장관, ‘남북화쟁 대중공사’서 강연

사회 각계 중견지도자들이 모여 불교계 통일기반 조성 및 남북교류 협력기반을 모색하는 ‘남북화쟁을 위한 대중공사’가 5월30일 송현리클럽에서 ‘새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강인덕 통일부 장관의 강연을 시작으로 공식 출범했다.

강인덕 장관은 강연에서 평화·화해·협력을 기조로 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와 3대 원칙을 설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70년대 초 남북한 냉전분위기가 하에서 남한의 종교계는 북한의 종교자세가 완전히 말살되고 달았다는 인식과 반공의 기치아래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견지한 반면 90년대 들어서는 북한이 남한 종교인들을 민간차원의 외교교섭에 활용해 국제적 종교단체를 통한 대북지원 유도를 하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남한측 종교인들의 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불교계의 적극적인 대북활동을 통한 민간교류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강 장관은 “불교

계 통일운동에 통일부가 힘 닿는대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각 종단차원에서 중도중용을 독려해 지속적인 북한돕기 성금 모금행사를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통일부 수장으로부터 불교계 통일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은 이날 ‘남북화쟁을 위한 대중공사’는 민족화합 불교추진위원회(총재 월주) 창립 1주년 기념법회에 이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월주 총무원장, 정 중앙총회회장, 태고종 인곡 총무원장, 진각종 성초 총무원장을 비롯해 조계종 성타(포교원장) 도후(신홍사 주지) 지선(백양사 주지) 도법(실상사 주지) 태고종 우담(중앙총무원장)스님, 진각종 회정정사(총무부장), 김광삼 현대불교신문 사장, 이문옥 감사관, 조희영(교불련 회장) 교수 등 2백여명의 교계 중진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도필선 기자



대구 경북지역 5개 본말사 주지 합동연수회가 1~2일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열렸다.

농어촌 포교 토론 ‘진지’

조계종 대구 경북 본말사 주지 연수

지역별 본말사 주지스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농어촌 지역의 포교방안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토론했다는 자리가 마련되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은 1일과 2일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주지사 동화사 은해사 불국사 교운사 등 대구 경북 5개본말사 주지스님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본말사주지 합동 연수회를 개최했다. 작년말부터 실시하던 연수회를 권역권역으로 나눠 실시해 지역 사찰의 교류와 불교계 현안에 대한 공동 관심사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었다는 평이다.

지난달 21일과 22일 통도사에서 열린 경남지역 본말사주지 합동연수회에 이어 두번째 열린 이번 연수회는 IMF시대와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한 불교계의 과제와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다.

사찰 경영일선에 선 본말사 주지스님들은 분임토의 시간을 통해 IMF시대와 정보화 시대를 맞은 불교계의 과제들을 풀기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가장 주목 받은 분야는 △농어촌포교에 대한 종단차원의 관심과 배려 △IMF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고급승용차안타기와 실직자자녀에 대한 유치원교육비 보조를 등, 참석자들은 “농어촌 포교를 위해 종단차원의 보다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농어촌 포교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하며 불교계가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국민적 노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사부대중 모두가 먼저 검약과 베푸는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컴퓨터교육과 사찰장부정리 등 실용적인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으며, 불교의 사회적 역할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

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지사부주지 범등스님은 “교구총회에서 60세이상의 5인이상 7인 이하의 ‘교구중진회의’를 구성해 3분의2의 다수결로 본사주지를 선출하자”며 경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잡음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분임토의에 앞서 진행된 강연에서 강사로 나선 무비스님(은해사 승가

“본사주지 선출

교구중진 회의서”

범등스님 제기

대학원장)은 “21세기의 수행자상과 사회적 역할이라는 강연을 통해 “혼돈과 복잡성을 기초로 하는 21세기에 수행자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불교 의식의 현대화, 정보화 시대의 적응, 소규모 유치원의 설립 확대 등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IMF시대 불교계의 과제와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김병기 통국대 부총장은 ‘육방예경’ 등을 인용, “소소유(小所有)의 경제학을 사찰 운영의 기초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한편, 통국대 경주캠퍼스는 인터넷 도매인(주소)을 각 교구본사에 무료로 제공키로 하는 등 정보화 사회의 교구본사 위상 강화에 종립대학이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지역별 조계종 본말사 합동연수회는 10일과 11일 호남권(지리산포교), 16일과 17일 경기 강원권(중소기업개발원), 7월 1일과 2일 충청권(주덕은행연수원)으로 이어진다.

경주=이은호 기자

금강국수공장에 후원금 보냅니다

●국민은행: 006-21-0808-274
●농협: 053-01-237065
●우체국: 010041-0302852
문의: (02)735-5559

I.M.F. 시대 불자님들을 위한 건강상품 기획전

「효소(酵素)」를 먹는 것은 살아있는 세포를 그대로 몸속에 집어 넣는 것과도 같습니다. 소화될 필요없이 바로 인체에 흡수되는 효소(酵素)! 약이라도 이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요?

음식의 「다이아몬드」 변비에 특별한 효과! 먹는것으로 낫지 않는 병은 의사도 못고친다. 현·대·인·의·해·독·제! (히포크라테스)

경이(경이)의 현미효소(酵素) 미용식품 율무효소(酵素)

●공해 독질시대의 구세주? ●체내 독소배출 효과 탁월 ●풍부한 섬유질에 의한 장기능 강화 ●잘못된 식생활로 인한 산(酸) 독증 방지 및 체질개선 ●변비 해소에 탁월한 효과
* 한미식사가기 헛도시? 식후 15정씩 씹어드시면 됩니다.
■ 소비자가격 : 1병(15일분) ₩15,000 2병(30일분) ₩30,000
■ 소비자가격 : 1병(15일분) ₩20,000 2병(30일분) ₩40,000

성장기어린이, 수험생, 노약자, 병약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께 권합니다.

다이어트 맛사지 헬스 미용벨트

이 「헬스미용벨트」는 살아 써서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 부위에 강력하지만 하면 됩니다. 제각각 운동과 맛사지를 해드림과 아울러 유산소 운동을 통해 군살까지 같이 드립니다. 체내 지방질 분해 다이어트 효과 최고!
* 소비자가격 ₩150,000 *기획특가 ₩98,000

미용 맛사지 운동
이것때, 복부, 둔부, 허벅지, 다리등 운동때론 사용하면 군살은 물론 몸매라리와 미용효과에 도움을 줍니다.
가슴 배, 허리, 발바닥, 허벅지, 둔부, 종아리

아이!! 오 개월 그 유명한 건강팬티~
바이오 세라믹 적외선 건강팬티
30여종의 광선에 함유된 원소를 추출 1000°C 고온으로 소성 정제한 「원적외선 바이오 세라믹」을 코팅처리하여 신비하고 소중한 부위의 경혈에 원적외선을 방사 흡수시켜 혈행 촉진시킴.
● 여성 생리통, 요통, 냉증완화, 위화제거
● 남성 남음예민, 정력증진
● 면100%+원적외선 바이오세라믹 코팅
● 소비자가격 ₩38,000(BOX) 기획특가 : 건강팬티 1BOX=₩25,000 * 자주 세탁할수록 효과가 뛰어나다
▶ 180cm 3개월

보너스상품 소개!!

2만원 이상 상품구입을 하시는 모든 「불교신문고객」에게는 아래 「가정용전자등 무공해 콩나물재배기」를 **돈만환 받지 않고 공짜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무 공해 콩나물 재배기
무공해 콩나물이 쫄쫄 큰대로 굵게...
전자등 무공해 콩나물 수경 재배기
● 불교신문 0041-0302852(2677)2678(충북)충북
● 콩나물콩이나 녹두, 무우, 기타 모든 씨앗을
● 허파(8cm)정도 물에 담았다가
● 재배기 속에 넣어 두기만 하면
● 새싹을 콩나물을 얻을 수 있는
● 참 희안하고 신기한 상품!
● 서민들께 꼭 필요한 상품입니다.
● 실내에서는 가습기 역할,
● 호습기질한 예방효과! 는 물론
● 자녀를 「자연학습교재」로도
● 자연탐구자료로도 최적입니다.

* 특전 : 10명이상 단체구입시에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문의처
두오상사 소비자상담실
0345) 84-4840
구좌번호 : 211062-52-148326 (농협:전영회)
경기도 안산시 장상동 34-16